

벼랑 끝 윤석열 “초심으로” 홀로서기 선언…승부수 통할까

지지율 하락에 선대위 해체 한달 만에 김종인과 결별 당 분열·젊은층 이탈 가속할 듯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대선을 63일 앞둔 5일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결별하고 ‘홀로서기’로 선대위 난맥상을 정면 돌파하는 승부수를 던졌다.

‘김종인 상황실’과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 지속으로 윤 후보의 리더십이 크게 흔들리며 급기야 일각에서 ‘후보 교체’까지 거론되는 최악의 위기 상황에 처하자, 기존 선대위를 해체하고 ‘후보 중심 초슬림 선대위’로 재조직하겠다는 것이다. 연말연초의 지지율 하락세를 멈춰 세우고 반동의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 꺼내든 극약처방이다. 당내에서는 이번 초강수에 대해 “성공하면 확실한 지지율 반등의 계기를 만들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당내 분열을 더 심화하고 중도층과 2030세대의 이탈을 가속할 것”이란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존 선대위 전면 해체를 선언하고 백지상태에서 다시 실무형의 ‘초슬림 선대위’를 꾸리겠다는 내용의 선대위 해산 구상을 발표했다. 총괄선대위원장, 상임선대위원장, 공동선대위원장을 비롯한 기존 선대위 조직을 다 허물고, 선대본부 체제로 조직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조직·정책·전략·홍보 정도의 핵심 기능만 남기고, 수도권 4선 중진 권영세 의원을 선대본부장으로

로 새로 임명해 선거 전략, 일정, 메시지 등을 총괄하겠다는 것이다. 젊은 실무자들에게 선대본부 주축을 맡기고 국회의원들에게 자리를 나눠주지 않겠다며, 당과 조직의 힘을 빌리기보다 개인기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같은 해산안은 윤 후보가 6개월 전 정치 입문 당시의 ‘윤석열다움’을 회복하겠다는데 방점이 찍혀 있다. 그는 회견에서도 “국민이 기대하셨던 처음 윤석열의 모습으로 돌아가겠다”면서 “초심”을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으로 지목받아온 권성동 사무총장, 윤한홍 전략기획부총장이 당직과 선대위직을 사퇴했다. 이미 ‘2선 후퇴’를 선언한 장제원 의원까지 윤 후보의 ‘최측근 3인방’이 백의중군하면서 윤 후보의 결단에 힘을 실었다.

윤 후보가 밝힌 선대위 해산의 핵심은 결국 김종인 위원장과의 결별 공식화라 할 수 있다. 기존 선대위를 허물고 실무형 선대위를 다시 짜면서 김 위원장이 자진사퇴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실상은 윤 후보가 김 위원장을 ‘경질’했다는 게 중론이다.

지난달 초 ‘울산 회동’으로 김 위원장이 선대위에 공식 합류한 지 한 달만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김 위원장이 윤 후보의 최종 동의 없이 ‘선대위 전면 개편’을 발표하고 ‘후보는 허라는 대로 연기만 하라’고 말한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많다.

윤 후보 리더십이 치명적으로 훼손된 상황에서 김 위원장을 안고 갈 경우 여론에서 집중 제기하는 ‘꼭두각시’ 프레임에 휘말리게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윤 후보 주변에선 ‘김종인 쿠데타’라는 말까지



일정 재개한 윤석열 후보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5일 오후 일정을 위해 서울 여의도 당사를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지 나왔으며 김 위원장을 ‘잘라야 한다’는 건의가 윤 후보에게 실제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선대위 해산을 예견된 결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윤 후보가 처음 김종인 위원장과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을,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 3인과 함께 하는 체제를 구상한 데 대해 김 위원장이 ‘선대위 원형을 요구하며 반발했’을 때부터 갈등의 씨앗이 내

재됐다, 결국 폭발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을 경질함으로써 윤 후보가 갈등 관계에 있던 이준석 대표와의 관계도 역지로 풀려 하겠다, 선을 긋고 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라 해석도 나온다.

김 위원장이 윤 후보와 갈라서면서 김 위원장을 따라 선대위에 합류한 금태섭·정태근 전 의원, 김근

식 경남대 교수도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윤 후보의 이번 벼랑 끝 승부수가 통할지는 향후 여론의 흐름에 달릴 것이라 관측이 나온다. 반면, 당이 취약한 중도와 2030세대 이탈을 가속화할 거란 우려도 나온다. 당내 인사들마저 품지 못하고 일부와 적대관계를 형성해 ‘통합의 리더십’과 배치되는 길로 가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연합뉴스

“김종인 팽 시킨 건 배은망덕” 민주, ‘선대위 해체’ 尹 맹공

본인의 반성·혁신이 먼저 ‘반문재인’만으로 선거 참사

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결별하고 선대위 해체를 선언한 것과 관련 “지지율 하락의 최종 책임은 윤 후보에게 있는데 엉뚱한 데 책임을 돌린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선대위의 전략기획본부장을 맡은 강훈식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나와 “(윤 후보가 김 위원장을) 선거에 이용하고 배제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김 위원장을 팽(토사구팽)시킨 것은 인간적으로 같이 할 사람이 없다는 게 확인된 장면”이라며 “정치에서 보면 배은망덕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를 향해 “문제가 선대위였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며 “본인의 반성, 혁신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민주연구원장인 노용래 의원 역시 “문제의 핵심은 윤 후보인데, 김종인 체내고 이준석 떠돌린다고 무엇이 달라지겠냐”라고 말하며 “제 다리 가려운데, 엉뚱하게 남의 다리 긁는 격”이라고 비유했다.

노 의원은 “애초부터 자기 비전도 없이 오로지 ‘반(反) 문재인’으로만 선거를 치르겠다는 심보가 불러온 촛극이며 참사”라며 “이제 남은 시나리오로는 보는 사람도 민망할 이전투구와 심상시 ‘윤 핵관’의 부활, 그리고 ‘제2의 육세 파동’”이라고 비교했다.

“육세파동” 언급은 윤 후보와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 상황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용민 의원은 SNS에서 “선대위 해체를 발표하는 윤석열의 모습에서 해경을 해체하던 박근혜의 모습이 보인다”며 “아직 문제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김두관 의원은 CBS 라디오에 나와 “윤 후보 입장에서 아마 김 위원장이 컨트를 타워 역할을 못 해서 그렇다고 인식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민주 ‘신년 추경’ 속도전 전부·사전지원…2월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신년 추경’ 속도전을 내고 있다. 민주당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 지도부, 관련 상임위원장 및 간사들이 참여하는 ‘코로나 극복 신년 추경 연석회의’를 열었다. 당초 원내대책회의를 추경 관련 긴급회의 형태로 전환한 것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작년 12월 소상공인의 체감 경기지수(BSI)는 39.3으로 전월 대비 26.9포인트나 하락했다. 현장의 처참함은 이런 수치로도 담기 어려운 지경”이라며 “말 그대로 신년 추경이(편성)되도록 하겠다. 제때를 놓치면 의미도 역할도 퇴색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본이 아닌 전부, 사후가 아닌 사전, 금융보다는 재정 지원이라는 3가지 원칙에 따라 신년 추경 편성에 속도를 내겠다”며 “공연문화예술계 그리고 인력 제한업종 등 기존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곳도 더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희생은 한계에 이르렀다”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신년 추경은 2월 국회 내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제명 건의

윤리특위, 소위·전체회의 결정 본회의 의결 거쳐야 확정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5일 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과 무소속 윤미향·이상직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자문위 관계자는 5일 “회의에서 박덕흠 윤미향 이상직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의결했다”며 “제명 이유와 관련해 이견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제명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

앞서 윤리특위는 작년 11월 11일 이들에 대한 징계요구를 상정한 뒤 자문위로 회부했다.

박덕흠 의원(3선)은 가족 회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주계약을 맺을 수 있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아 징계안이 발의됐다. 재작년 9월 국민의힘을 탈당했던 박 의원은 전날 약 15개월 만에 복당했다.

윤미향 의원(조선)은 과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 손해를 가했다는 의혹이, 이상직 의원(재선)은 자녀가 소유한 이스타홀딩스 비

상주계좌를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하지 않았다는 의혹 등이 문제가 됐다.

자문위는 국회의원 자격과 징계 심사를 맡는 윤리특위의 자문 기구로, 8명의 외부인사로 구성돼 있다.

자문위가 징계 의견을 내놓으면 특위는 이를 다시 징계심사소위원회로 넘겨 심의한 뒤 전체회의에서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특위 징계안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그러나 그간 의원들에 대한 특위 징계가 대부분 송방량이 처벌에 그쳤다는 점에서 이들의 의원직 제명이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다.

윤리특위는 지난 18대 국회 때 야나우서 비하 발언을 한 강용석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이례적으로 결정했으나 본회의에서 부결됐고, ‘30일간 국회 출석 정지’로 징계수위는 대폭 낮아졌다. /연합뉴스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부동산중개법인 한국토지부동산

전원주택 강력추천!

전남 담양군 가사문학면

경상리 전원주택부지

■ 면적 : 456평

■ 4채 건축허가 득

■ 진입로 상수도 확보

상담 010-3675-7592